

## 들뢰즈와 과타리의 보편사 개념에 대한 연구\*

성기현\*\*

### [초 록]

보편사는 특정한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기술하려는 역사 철학적 시도다. 역사의 보편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보편사를 시도했던 근대 철학자들과는 달리, 들뢰즈와 과타리는 역사의 보편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 대상은 바로 흐름으로서, 그들의 보편사는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미개, 야만, 문명이라는 세 유형의 사회체를 갖는다. 이 논문의 핵심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그들의 유형학적 보편사의 두 주요 특징을 밝혀 그것의 개념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들의 보편사는 우발의 역사이자 회고적 역사로서, 역사를 우발의 결과로 간주하되 그 결과를 회고적으로 탐구한다. 둘째, 생산 중심과 흐름 관리라는 두 측면에서 각 사회체의 성격을 규명한다. 각 사회체에서 그 두 측면에 해당하는 것은 미개의 토지와 코드화, 야만의 전제군주와 초코드화, 문명의 자본과 탈코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269).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어: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역사철학, 보편사, 사회체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Philosophy of History, Universal History, Socius

하다. 셋째, 사회진화론과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보편사가 갖는 유효성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사회체들 간의 이행과 공존을 동시에 설명하는 대안적인 논리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원시 사회 속 권력의 동역학을 제시하는 동시에, 원국가 개념을 통해 사회진화론의 도구주의적 국가 개념을 비판한다.

## 1. 들어가는 글

보편사(histoire universelle)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 그것은 특정한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기술하려는 역사철학적 시도다. 일찍이 칸트(Immanuel Kant)는 일견 무질서하고 우연한 현상들의 숨겨진 원인을 살펴 “긴 안목으로 고찰해 본다면 [...] 그 속에 어떤 규칙적인 진행이 있음을 발견”<sup>1)</sup>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예컨대 인간의 자유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결혼이나 출산 등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어 보이지만, 큰 국가들의 연간 통계 자료 속에서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전개되듯이”<sup>2)</sup> 일련의 규칙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아무런 고유한 계획도 없이 행위하는 피조물에 대해 자연의 확정된 계획에 따른 역사를 상징”하여 “**보편적 세계사를 편찬하려는 철학적 시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3)</sup> 그에 따르면, 보편적 세계사에서 발견되는 ‘자연의 확정된 계획’이란 인간들 상호 간의 지속적인 대립과 불화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대립과 불화를 활용하여) 법의 지배 속에서 인류가 자신의 소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사회를 한 국가의 수준(시민적 정치 체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들 간의 수준(국제

1) 임마누엘 칸트(2009), 『칸트의 역사 철학』, 이한구 편역, 서울: 서광사, p. 23.

2) 칸트(2009), p. 24.

3) 칸트(2009), p. 25, p. 42 (강조는 원문).

연맹)에서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잘 보여주듯이, 서양 근대 철학에서 보편사는 흔히 ‘역사의 보편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발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왔다. 예술, 종교, 철학의 단계를 거쳐 자신의 완전한 실현으로 나아가는 절대정신의 역사[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 자신의 완전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노동계급의 역사[마르크스(Karl Marx)]는 그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들뢰즈(Gilles Deleuze)와 과타리(Félix Guattari)는 두 권의 ‘자본주의와 분열증’(『안티 오이디푸스』와 『천 개의 고원』)에서 그들 나름의 보편사를 개진하는데, 앞선 근대철학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그것은 역사의 보편적인 목적이 아니라 역사의 보편적인 대상과 관련된다.

정확히 말해 보편사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향하는 필연의 역사가 아니라] 우발(contingence)의 역사다(역사의 대상인 흐름(flux)은 어떻게 원시적 코드들, 전제군주적 초코드화(surcodage), 독립적인 흐름들의 통접(conjonction)을 가능케 하는 자본주의적 탈코드화(décodage)를 경유하는가).<sup>4)</sup>

이후 논의될 보편사의 구조를 간략히 요약하는 이 문장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보편사 혹은 역사의 대상이 다름 아닌 ‘흐름’이라는 사실이다. 이러저러한 형식들을 가로지르면서[코드화(codage)와 탈코드화] 이리저러한 영역들을 옮겨다니는[영토화(territorialisation)와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 모든 것, 가변성과 유동성을 띠고 있어 다양한 코드와 영토를 취하는 모든 것을 그들은 흐름이라고 부른다. 개체의 탄생과 죽음을 넘어 종(種)과 유(類)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 은행

4) Gilles Deleuze (2003), “Préface pour l’édition italienne de *Mille plateaux*”, édition préparée par David Lapoujade, *Deux régime de fous. Textes et entretiens 1975-1995*, Paris: Minuit, p. 289 (강조는 원문, [ ]는 인용자).

잔고에서 지갑 속 화폐로 다시 상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의 흐름, 키보드에서 시작되어 PC를 거쳐 휴대폰으로 이어지는 정보의 흐름... 일찍이 베르그손(Henri Bergson)은 생성 철학의 관점에서 사회의 기능과 존재 방식을 이렇게 요약한 바 있다. “사회는 본질적 과제는 보편적 운동성에다 어떤 고정성을 삽입하는 것이다. 사회들이란 생성의 대양 곳곳에 굳어져 생긴 섬들과 같다.”<sup>5)</sup> 베르그손적인 영감이 엿보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들뢰즈와 과타리는 흐름과 코드라는 두 용어로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과제를 규정한다.

사회체(socius)의 문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욕망의 흐름들을 코드화하고 기입하고 등록하여, 막히거나 수로화되거나 규제되지 않는 그 어떤 흐름도 흐르지 못하게 하기.<sup>6)</sup>

두 저자가 보기에, 사회체의 과제는 사방으로 흘러가려는 흐름의 자연적 경향에다 (코드와 영토라는 두 수단을 통해)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로부터 보편사의 상호 보완적인 두 측면이 나온다. 한편으로, 그것은 흐름이라는 보편적 대상의 역사, 흐름의 탈코드화 및 탈영토화의 역사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흐름을 규제하는 사회체들의 역사, 흐름의 코드화 및 영토화의 역사다.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두 저자는 이 사회체들을 미개(sauvages), 야만(barbares), 문명(civilisés)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건(Lewis Henry Morgan)의 『고대 사회』를 참조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국지적

5) Henri Bergson (1959), *La pensée et le mouvant*, Œuvres, Paris: PUF, pp. 1322-1323.

6)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1972), *L'anti-É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 1*, Paris: Minuit, p. 40 [질 들뢰즈·펠릭스 과타리(201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역, 서울: 민음사, p. 69. 이하 번역본을 활용하는 경우 쪽수를 ( ) 안에 병기하며, 문맥상 필요한 경우 수정하되 일일이 표시하지는 않는다.]

역사들은 상호 유사한 발전을 보여주는데, 그로부터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역사를 사유할 수 있다.<sup>7)</sup> 모건에게 미개, 야만, 문명이란 바로 그 발전의 단계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들뢰즈와 과타리는 각각 코드화, 초코드화, 탈코드화(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영토화의 양상들)의 방식으로 흐름을 관리하는 세 사회체를 가리키는 데 이를 활용한다.

이 논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로, 들뢰즈와 과타리의 보편사 개념이 갖는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답함으로써 그 개념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둘째로, 보편사를 이루는 세 사회체를 생산 중심과 흐름 관리라는 두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각 사회체와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참조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는 인류학적·사회학적·역사철학적 이론들의 그물망 속에 두 저자의 보편사 개념을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함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 저자의 보편사 개념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밝혀 이후 진전된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이 논문의 세 번째 목표가 있다.<sup>8)</sup>

- 7) “인류의 경험은 거의 동일한 경로들을 거쳐왔고, 유사한 조건들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대체로 동일했으며, 인류에 속한 모든 인종들의 두뇌가 종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정신적 원리의 작용들도 동일했다.” Lewis Henry Morgan (1964), *Ancient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 8. 모건은 발명과 발견, 통치, 가족, 재산이라는 네 기준에 비추어 미개, 야만, 문명을 진화론적 발전의 세 단계로 제시한다. 그중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 미개는 인류의 등장에서 불·수렵·활과 화살의 사용까지를, 야만은 토기·가축사육·관개농업·벽돌·철광석의 사용까지를, 문명은 표음문자의 사용 이후를 가리킨다. Morgan (1964), p. 12. 들뢰즈와 과타리는 모건의 진화론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형학적 관점에서 그들이 지칭하는 대상도 그와는 구별된다. 이하의 논의를 보라.
- 8) 보편사는 오이디푸스 비판과 더불어 『안티 오이디푸스』의 두 중심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천 개의 고원』 13장 ‘기원전 7000년 포획장치’와 더불어 ‘자본주의와 분열증’ 전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개념을 다룬 주요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Ian Buchanan (2008), *Deleuze and Guattari's 'Anti-Oedipus': A Reader's Guide*,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이언 뷰캐넌(2020),

## 2. 보편사 개념의 정당화 문제

결국 보편적인 것, 즉 기관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es*)와 욕망적 생산(*production désirante*)이 명백히 승리자인 자본주의에 의해 규정된 조건들 속에 있다면, 보편사를 쓰기에 충분한 결백함은 어떻게 찾을까?)

들뢰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보편사를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결백함’이 요구된다. 이 표현은 보편사가 쉽게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편적인 것, 즉 역사의 보편적 대상을 자본주의가 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것은 결국 보편사가 자본주의의 승리를 찬양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장에서 우리는 두 저자가 말하는 보편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동시에 보편사가 자본주의와 맺는 관계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위의 인용문에서 역사의 보편적 대상이 (앞 장에서 언급했던 ‘흐름’이 아니라) 기관 없는 신체와 욕망적 생산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에 잠시 주목해보자. 기관 없는 신체, 욕망적 생산, 흐름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위의 인용문은 어떤 이유에서 마지막 용어가 아니라 앞선

---

『『안타-오이디푸스』 읽기』, 이규원·최승현 역, 서울: 그린비]; Guillaume Sibertin-Blanc (2010), *Deleuze et l'anti-Edipe: La production du désir*, Paris: PUF; Jérôme Rosanvallon, Benoît Preteseille (2016), *Deleuze & Guattari à vitesse infinie 2*, Paris: Ollendorff & Desseins; Daniel W. Smith (2018), “7000 BC: Apparatus of Capture”, Henry Somers-Hall, Jeffrey A. Bell and James Williams (ed.), *A Thousand Plateaus and Philosoph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다음 논문이 선구적으로 보편사 개념을 일부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주제화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김재인(2013), 「들뢰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논문, pp. 26-54. 이 논문의 연구 목표는 국내의 이러한 연구 현황을 고려한 것이다.

9) Deleuze, Guattari (1972), p. 163 (p. 245).

두 용어를 역사의 보편적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일까?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보편사 논의의 맥락에서 기관 없는 신체가 사회체와 동일시된다는 사실이다. 이때 기관 없는 신체 혹은 “**사회체**라고 규정된 충만한 신체”는 “[생산의] 경과와 짝지어진 반생산의 요소”로 정의된다.<sup>10)</sup> 즉 여기에는 생산과 반생산, 기관 있는 신체와 기관 없는 신체의 대립이 있는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다른 아닌 기계(machine)들의 등록(enregistrement)과 이탈(détachement)에 상응한다. 들뢰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생산의 담당자는 기계이고 그것의 생산 방식은 절단이다. 그리고 생산의 출발점은 코드화되지 않은 흐름 혹은 다른 방식으로 코드화된 흐름이고 그것의 결과물은 새롭게 코드화된 흐름이다. 우리가 옥수수를 섭취한다고 해보자.<sup>11)</sup> 첫 번째 기관-기계는 이빨로 그것을 일정한 크기와 형태로 자르고 침으로 녹말을 당분으로 코드화한다. 두 번째 기관-기계는 위산과 펩신이 포함된 위액을 분비하는데, 전자는 섭취물의 부패와 발효를 막고 후자는 단백질을 장자벽이 흡수할 수 있는 펩톤으로 코드화한다. 이렇듯 특정한 코드화를 수행하는 절단들이 각각의 신체 부위에 등록되어 있는 한에서, 그 기관-기계들은 자신의 생산을 향유하는 가운데 ‘먹는 입’이나 ‘소화하는 위’와 같은 잠정적인 규정성을 얻는다. 우리는 기계들을 가로질러 매번 다른 방식으로 코드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열거할 수 있다. 향문이라는 기관-기계의 배설이 결코 마지막 절단은 아니다. 인공물

10) Deleuze, Guattari (1972), p. 16 (p. 36, 강조는 원문, [ ]는 인용자).

11) 이하의 서술은 다음을 응용한 것이다. “한 기계는 흐름을 방출하고, 이를 다른 기계가 절단한다. 젓가슴은 젖을 생산하는 기계이고, 입은 이 기계에 짝지어진 기계이다. 거식증의 입은 먹는 기계, 향문 기계, 말하는 기계, 호흡 기계 사이에서 주저한다.” Deleuze, Guattari (1972), p. 7 (p. 23). 인용문의 마지막 대목은 기계가 미리 주어진 고유의 규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어떻게 절단하는가에 따라 잠정적인 규정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입은 젖의 흐름을 절단할 때는 먹는 기계이지만 거식증으로 인해 그것을 뱉을 때는 일종의 향문 기계이고 목소리를 절단할 때는 말하는 기계이며 공기를 절단할 때는 호흡 기계다).

(이를테면 변기나 하수처리장 등)을 자신의 일부로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흐름이 경유하는 생산의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관 있는 신체와 기관 없는 신체의 대립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두 신체가 아니라) 동일한 신체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가리킨다. 정확히 말해, 그것은 1) 특정한 기계들이 등록되는 측면(생산)과 2) 그러한 등록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 그리하여 때로는 앞서 등록된 기계들을 이탈시켜(반생산) 다른 등록을 도모하는 측면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사회체로서의 기관 없는 신체는 무엇을 뜻하는가? 두 저자에 따르면, 그것은 “토지의 신체일 수도, 전제군주의 신체일 수도, 자본일 수도 있다.”<sup>12)</sup> 곡식을 위한 논밭과 가축을 위한 목장은 토지의 생산력 위에 등록된 미개 사회체의 기계들이고, 봉건적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관료제와 상비군은 전제군주의 권능 위에 등록된 야만 사회체의 기계들이며, 개업과 폐업을 거듭하는 공장과 상점은 자본의 전능함 위에 등록된 문명 사회체의 기계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기관 없는 신체야말로 물신(物神)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산 전체가 자신을 등록하는 하나의 표면을 형성”할 때, 그리하여 “생산 전체가 그 등록 표면에서 발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토지·전제군주·자본은 그야말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sup>13)</sup> 논밭을 갈고 가축을 돌본 이들이 대지 모신(母神)에게 드리는 감사, 문서를 편찬하고 군대를 지휘한 이들이 전제군주에게 바치는 영광, 상점을 열고 공장에서 땀 흘린 이들이 자본가에게 돌리는 찬사는 각 사회체 고유의 물신에 해당한다.

보편사 개념의 정당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제 그것의 성격 규정 문제로 돌아가보자. 들뢰즈와 과타리는 보편사에 여러 규정을 부여하는

12) Deleuze, Guattari (1972), p. 16 (p. 36).

13) Deleuze, Guattari (1972), p. 16 (p. 36).



데, 여기서는 그중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up>14)</sup> 첫 번째 규정에 따르면, 보편사는 회고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비추어 역사 전체를 회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그들이 각 사회체를 규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세 용어, 즉 코드화·초코드화·탈코드화를 통해 쉽게 설명된다. 미개는 흐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지적으로 코드화되어 있어(자유롭게 소통되지 않는 부족 언어들, 등가 교환이 어려운 물물화폐들 등) 흐름의 운동이 쉽게 전면화되지 않는 사회체를 가리킨다. 야만은 국지적인 코드들 위에 상위 코드를 설정하여(초코드화) 전제군주에게로 향하는 흐름의 수직적 운동을 조직한 사회를 가리킨다(표준어의 확립,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 등). 문명은 흐름이 코드화 및 초코드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운동하는 사회, 즉 흐름이 탈코드화된 사회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말이 문명 사회체에 일체의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문명 사회체에 이르러 코드가 생성·변화·소멸되는 속도가 극도로 빨라졌음을 가리킨다(언어의 급속한 변이와 확산, 주식 및 환율시장에서 가치의 순간적 이동 등). 두 저자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체의 **음화(陰晝)**”로서, “**대립 추론에 의해(a contrario)** 모든 사회구성체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sup>15)</sup> 이는 결국 그들이 탈코드화된 사회에 비추어 아직 탈코드화되지 않은 사회들을, 즉 코드화되거나 초코드화된 사회들을 탐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두 번째 규정에 따르면, 보편사는 (필연의 역사가 아니라) 우발의 역

14) “보편사는 회고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발적이고 독특하고 아이러니하고 비판적이다.” Deleuze, Guattari (1972), p. 164 (pp. 246-247).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규정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보편사가 ‘독특하다’는 말은 자본주의가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에도 광범위한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뜻하며, ‘아이러니하고 비판적’이라는 말은 자본주의가 자기비판의 지점을, 즉 자신을 한 계로 몰고 가는 경향(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공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15) Deleuze, Guattari (1972), p. 180 (p. 267, 강조는 원문).

사다.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생 자체일 것이다. 문명은 ‘흐름들의 탈코드화’로 규정되지만, 사실 탈코드화는 코드화의 이면으로서 코드들과 더불어 항상 존재해왔다. “탈코드화된 욕망들, 탈코드화의 욕망들은 늘 있었고, 역사는 이것들로 충만하다.”<sup>16)</sup> 이를테면, 야만 사회체에서도 “고대국가의 초코드화는 [...] 그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흐름들을 야기한다.”<sup>17)</sup> 전제군주의 영광을 기리기 위한 대형 토목공사는 봉건적 통제에서 벗어난 장인들을,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의 수단(화폐)은 자율적인 상업 유통망과 초보적인 금융업자들을 탄생시킨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탈코드화의 사례들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유럽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그런 사례들은 왜 자본주의의 형태를 띤 새로운 사회체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판매되는 재산들의 흐름, 유통되는 돈의 흐름, 그림자 속에서 준비되는 생산 및 생산수단들의 흐름, 탈영토화되는 노동자들의 흐름 —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 이 모든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만남, 이것들의 결합, 이것들 서로 간의 반작용이, 한 번에 생산되는 이 만남, 이 결합, 이 반작용의 우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18)</sup>

---

16) Deleuze, Guattari (1972), p. 265 (p. 382).

17)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 2, Paris: Minuit, p. 560 (강조는 원문).

18) Deleuze, Guattari (1972), p. 265 (p. 382). 브로델(Fernand Braudel)을 인용하면서, 두 저자는 이 우발과 관련해서 유럽이 다른 지역들보다 유리했던 조건을 제시한다. “서양의 장점은, 아시아의 좁은 갑(岬)에 봉쇄되어, 세계가 필요했고, 자기 안식처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일까?” Fernand Braudel (1967),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I, Paris: Armand-Colin, p. 359.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갖춰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것들이 일정한 시공간에서 결합되는 만남의 우발이 또한 요구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발이라는 개념에 천착했던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논의를 잠시 경유하기로 하자. 그에 따르면, 우리는 “우발을 [...] 필연의 예외로 사유할 것이 아니라 필연을 우발적인 것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만남으로 사유해야 한다.”<sup>19)</sup> 자본가(여유자금을 갖춘 자들), 기술 수단(기계와 도구), 생산 소재(국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들), 노동자(노동력 이외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자들) 등은 자본주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다.<sup>20)</sup> 오히려 ‘떠다니던’ 이 요소들 간의 우발적 만남이 그것들을 고정시켜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만든다. 그런데 그것들이 일단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확립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는 특정한 “구조가 그 요소들에 선행”하게 되며, 따라서 그 구조가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그 요소들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sup>21)</sup> 여기서 우리는 보편사의 우발적 성격이 회고적 연구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우발적 만남이 있기 이전에 그 요소들을 미리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우발적 발

19) Louis Althusser (1994), “Le courant souterrain du matérialisme de la rencontre”, *Écrits philosophiques et politiques*, tome 1, Stock/IMEC, p. 566. 1982년에 쓰인 이 텍스트에서 알튀세르는 ‘만남의 유물론’을 개진했던 철학자들의 계보에 들뢰즈를 포함시킨다. “만남의 유물론은 부정성에 대한 긍정성의 우위라는 주제(들뢰즈) 속에 [...] 들어있다.” Althusser (1994), p. 562.

20) “‘만남’이 ‘고정’됨에 따라 귀결되는 모든 것은 요소들의 ‘고정’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따른다. 따라서 그것은 ‘고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Althusser (1994), p. 571. 알튀세르는 18~19세기 포강 유역의 이탈리아 국가들을 언급하는데, 이 국가들은 자본·동력원(수력)·동력원을 활용한 기술·노동력(실업 상태의 장인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본주의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는 생산된 상품들을 소화할 내수시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21) Althusser (1994), p. 574 (강조는 원문).

생과 보편사의 회고적 연구는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우발적 만남은 자본주의적 사회체 연구의 대상(어떤 흐름들인가?)과 성격(어떻게 탈코드화되는가?)을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회고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앞선 연구에 비추어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다른 사회체 연구의 대상(어떤 다른 흐름들인가?)과 성격(어떻게 탈코드화되지 않는가? 즉 어떻게 코드화되거나 초코드화되는가?)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보편사 전체를 회고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 3. 보편사의 구조

#### 3.1. 미개

보편사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인류의 등장에 관한 들뢰즈와 과타리의 견해를 잠시 살펴보자. 그들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의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 즉 기술과 언어, 도구와 상징, 자유로운 손과 유연한 후두, ‘몸짓과 말’이 [...] 인간이라는 절대적 기원과 더불어 등장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sup>22)</sup> 인간은 (언급된 특성들의 ‘절대적 기원’이기는커녕) 기술-도구-자유로운 손-몸짓을 한편으로, 언어-상징-유연한 후두-말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중의 탈영토화가 낳은 귀결이기 때문이다.<sup>23)</sup> 르루아 그루앙(André Leroi-Gourhan)의 분석을 참

---

22) Deleuze, Guattari (1980), p. 79.

23) 두 저자는 이 이중의 탈영토화가 야기된 원인을 일군의 유인원이 (익숙한 생존 환경인 숲에서 벗어나) 스텝에 살게 되었다는 데서 찾는다. Deleuze, Guattari (1980), p. 80. 이 경우, 유인원들은 과거처럼 나무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직립 보행을 해야 하고(자유로운 손), 과거보다 위협에 훨씬 쉽게 노출되어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유연한 후두). 그들의 이러한

고하면서, 그들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편으로, 손은 “탈영토화된 과거의 발”<sup>24)</sup>로서, 신체의 이동이라는 과제에서 벗어나 도구에 재영토화됨으로써 기술의 발전으로 향한다. 다른 한편으로, 입은 “아가리의 탈영토화”<sup>25)</sup>로서, 음식물의 섭취라는 과제에서 벗어나 언어에 재영토화됨으로써 의사소통의 발전으로 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들뢰즈와 과타리의 보편사는 세 유형의 사회체를 제시하는데, 이제 우리는 각 사회체를 생산 중심과 흐름 관리라는 두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앞당겨 말하자면, 그중 미개 사회체(원시 기계, 절편 영토 기계)는 토지를 중심으로 생산의 대상·수단·실천을 조직하는 한편, 국가라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가 성립되지 않도록 흐름의 집중을 가로막는 사회를 가리킨다.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 미개 사회체는 초보적인 도구와 언어를 갖춘 인간이 자연환경 일반에 자신의 생존(수렵/어획/채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일정한 토지(영토)에 정착하고 그것을 경작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토지는 그 위에 생산의 모든 경과가 기입되고, 노동대상들, 노동수단들, 노동력들이 등록되고, 담당자들과 생산물들이 분배되는 표면이다.”<sup>26)</sup>

주장은 다음을 참조한 것이다. Emile Devaux (1933), *Trois problèmes. l'espèce, l'instinct, l'homme*, Paris: Le François.

24) “[인간의] 자유로운 손은 움켜쥐기·이동하기에 사용되는 원숭이의 손보다 더 탈영토화되어 있다.” Deleuze, Guattari (1980), p. 79 ([ ]는 연구자). 르루아 그루앙의 다음 언급도 함께 보라. “손이 자유로워진 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원숭이와 전혀 다른 기술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손이 자유로운 것은 짧은 얼굴과 공격적인 송곳니가 없는 것과 결부되는데, 도구라는 인위적인 기관의 사용을 명령한다. 곧게 선 자세, 짧은 얼굴, 이동하는 동안 자유로운 손, 이동시킬 수 있는 도구의 소유는 인간의 진정한 기본적인 기준이다.” 앙드레 르루와-그루앙(2015), 『행위와 말 1: 기술과 언어』, 공수진 역,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p. 31 (번역 일부 수정).

25) “[인간의] 입을 음식물과 소음이 아니라 말로 채우다니 얼마나 기묘한 탈영토화인가.” Deleuze, Guattari (1980), p. 80 ([ ]는 연구자).

26) Deleuze, Guattari (1972), p. 165 (p. 247).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수확하는 모든 일들이 영토 위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제 재배 가능한 종들, 농업 도구들, 노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특정한 영역과 역할을 부여받고 그 위에 자리를 잡는다. 이런 방식으로, “원시 영토 기계는 [...] 생산의 흐름들, 생산수단의 흐름들, 생산자들 및 소비자들의 흐름들을 코드화한다.”<sup>27)</sup> 이로부터 미개 사회체에서 영토가 갖는 절대적인 중요성이 귀결되는데, 고들리에(Maurice Godelier)에 따르면 원시 사회에 자기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친족관계가 아니라) 영토다.<sup>28)</sup> 이상의 논의는 우리에게 이른바 ‘신석기 혁명’을 쉽게 연상시킨다. 차일드(Vere Gordon Childe)는 12,000년 전쯤 시작된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가리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변화는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토기 등 전문화된 도구의 사용으로 요약된다.<sup>29)</sup>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들뢰즈와 과타리에게 미개 사회체가 신석기 시대라는 문명사의 한 단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야만 및 문명 사회체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오히려 공존하면서 서로 혼합되는 사회체의 기본 유형들 중 하나를 가리킨다.

27) Deleuze, Guattari (1972), p. 166 (p. 249).

28) 고들리에는 “모건 이후 오늘날까지 인류학에 널리 퍼져있는 주장이자 인류학을 넘어 모든 사회과학 일반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있는 주장”, 즉 ‘사회가 친족관계에 기반해서 구성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바루야족은 부족 전체를 재생산하기 위해 어떤 영토를 스스로 요구하고 그것을 지배할 때 하나의 사회가 된다.” 이는 “자연의 일부와 거기에 거주하는 존재들에 대해 일종의 지배권을 함께 행사하는 일로서, 그 존재들에는 식물과 동물 들뿐만 아니라 인간들, 죽은 자들, 영혼들, 그리고 그것들 속에 머물 수 있는 신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배권은 조상 전래의 영토를 수호할 전사들을 길러내는 통과의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Maurice Godelier (2010), *Au fondement des sociétés humaines*, Paris: Flammarion, p. 102, p. 107, p. 109.

29) 고든 차일드(2011), 『인류사의 사건들』, 고일홍 역, 서울: 한길사, pp. 91-94. 그는 이 시기를 8,000년 전쯤으로 추정했으나, 번역자가 지적하듯 이는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와는 다르다. 차일드(2011), p. 51 참조.

다음으로, 두 번째 측면은 생명의 흐름을 통제하여 토지를 관리할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혈연과 결연의 문제다. 들뢰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미개 사회체는 “**토지의 몸 위에서 결연과 혈연을 직조**”<sup>30)</sup>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는 난혼 혹은 그에 상응하는 불안정한 성적 관계 하에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다니던 생명의 흐름, 이른바 ‘배아(胚芽)적 흐름’을 수직 구조의 시간적 연속성(혈연)과 수평 구조의 공간적 확산성(결연)으로 코드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혈연은 부계 성을 전달하여 가문을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 결연은 다른 가문의 여성에게서 자손을 얻어 자기 가문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문들 간의 결사체인 부족을 형성한다. 두 저자가 리치(Edmund Leach)의 ‘지역 가계’(local lineage) 개념을 빌려 말하듯이, 미개 사회체는 “같은 지역 내지 이웃 지역에 거주하며, 결혼을 도모하고, 구체적 현실을 형성하는 인간 집단들”<sup>31)</sup>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화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의 절편적(segmentaire) 성격(‘절편’ 영토 기계)이다. 이를 통해, 미개 사회체가 수행하는 코드화의 실천적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체계 전체는 두 극 사이에서 진화한다. 한 극은 [체계 외부의] 다른 집단들과 대립하는 융합의 극이요, 다른 극은 [체계 내부의] 결연들과 혈연을 자본 삼아 독립을 열망하는 새 가문을 부단히 형성하는 분열의 극이다. [...] 절편 영토 기계는 분열에 의해 융합을 쫓아내고, 족장제의 기관(器官)들을 집단과 무력한 관계로

30) Deleuze, Guattari (1972), p. 171 (p. 256).

31) Deleuze, Guattari (1972), pp. 172-173 (p. 258). 다음의 지적도 함께 보라. “지역 외혼은 근친혼 금기를 강화하는 소극적 기능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 밖에서 혼인 관계를 맺도록 강제하는 적극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역 외혼제의 의미는 정치적 연대의 수단이라는 기능 속에서 발견된다.” 피에르 클라스트르(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홍성흠 역, 서울: 이학사, p. 85.

유지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막는다.<sup>32)</sup>

‘절편적 사회’라는 개념은 원시 사회에 노동분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뒤르켐(Emile Durkheim)이 만들어낸 것으로, 에번스-프리처드(Edward Evans-Pritchard)는 중앙집권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다 그것을 적용했다.<sup>33)</sup> 그런데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들뢰즈와 과타리는 이 개념을 훨씬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 미개 사회체가 절편성을 띤다고 할 때, 이는 단순히 중앙집권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권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 구성원들이 적극적·체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클라스트르(Pierre Clastres)가 쓴 저작의 제목,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가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sup>34)</sup> 그에 따르면, 원시 사회는 “개인적이고 집중화된 그리고 분리된 정치권력의 출현을 거부”하며, 쉽게 말해 “추장이 전제군주로 전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sup>35)</sup>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sup>36)</sup> 첫째, 부족원

---

32) Deleuze, Guattari (1972), p. 179 (p. 266).

33) Rosanvallon, Preteseille (2016), p. 69 참조.

34) “원시사회의 성격은 불완전함, 불충분함, 결여 등으로 규정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적극적인 것으로서, [...] 스스로의 사회 존재를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며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지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클라스트르(2005), p. 246.

35) 클라스트르(2005), p. 262, p. 256.

36) Rosanvallon, Preteseille (2016), p. 70 참조. 이하의 논의에서 첫 번째 측면은 널리 알려진 모스(Marcel Mauss)의 개념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은 클라스트르의 분석을 원용한 것이다. 모스에 따르면, 전통 사회에는 자유로운 공개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교환은 무리들(추장들, 씨족의 지도자들, 신부 집안과 신랑 집안 등) 사이에서 중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중여는 흔히 ‘선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주기·받기·더 크게 보답하기라는 3중의 의무를 함축하는 것으로 오세아니아, 고대 로마, 고대 인도, 독일 부족국가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제리 무어(2002), 『인류학의 거장들』,



들은 생산된 잉여가치를 남김없이 소비하는데, 이를 통해 부의 집중이 방지된다[증여의 경쟁으로서의 포틀래치(potlach)]. 둘째, 부족원들은 화술·카리스마·전투력 등 추장의 덕목을 언제나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통해 권력의 영속화가 방지된다. 셋째, 부족들은 결연 관계를 바꿔가면서 끝없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를 통해 지배 권력의 단일화가 방지된다. 두 저자는 이를 예견-배제(anticipation-conjuration)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적은 사회체의 절편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 3.2. 야만

이제 두 번째 사회체를 생산 중심과 흐름 관리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자. 앞당겨 말하자면, 야만 사회체(전제군주 기계)는 전제군주의 이름 아래 흐름을 집중시키는 한편, 전제군주와 신의 직접 혈연을 내세워 과거의 혈연과 결연을 재조직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미개 사회체에서 야만 사회체로 가는 이행을 설명해주는 개념으로 초코드화를 내세운다. “**초코드화**,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조작이요, 국가와 옛 구성체[미개 사회체]들의 연속성과 단절을 동시에 측정하는 조작이다.”<sup>37)</sup> 앞서 언급했듯이, 초코드화란 앞선 코드들 위에도 그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코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코드들을 넘나드는 ‘위험한’ 흐름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테면 “비국가적이거나 반국가적인 힘들이 직접 교류하면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할 가능성”<sup>38)</sup>을 줄여준다.

이번에는 흐름 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초코드화를 먼저 살펴

김우영 역, 서울: 한길사, pp. 185-186 참조.

37) Deleuze, Guattari (1972), p. 236 (p. 342, 강조는 원문, [ ]는 연구자).

38) Rosanvallon, Pretescille (2016), p. 75.

보기로 하자. 들뢰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야만 사회체는 “모든 결연과 혈연을 다시 절단하고, 이것들을 연장하며, 이것들을 신과 전제군주의 직접 혈연, 전제군주와 백성의 새로운 결연 위에서 수립시킨다.”<sup>39)</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혈연과 결연은 미개 사회체가 배아적 흐름을 코드화한 결과물이었다. 이제 야만 사회체는 1) 전제군주와 신의 직접 혈연, 그리고 2) 그 토대 위에서 수립되는 전제군주와 백성의 새로운 결연이라는 형태로 그것들을 초코드화한다. 1)과 관련해서, 고대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에서 (심지어는 근대의 일본과 프랑스에서도) 전제군주나 중앙집권적 권력의 소유자가 신적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그가 신 내지 신의 아들(‘직접 혈연’)이라는 주장을 통해 정당화되어왔다.<sup>40)</sup> 물론 이러한 관계는 확인될 수 없지만, 들뢰즈와 과타리가 지적하듯 그 관계의 사실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의 권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그 관계 자체라기보다는 그러한 “전제군주의 발명을 선전하고(필경 이 집단들은 전제군주를 위해 그 발명을 꾸며 내기까지 했으리라) 이들이 세우거나 정복하는 도시들에서 그의 영광을 유포하고 그의 권력을 강요”<sup>41)</sup>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와 관련해서, 전제군주의 절대적 권력은 그에 부합하는 사회조직, 즉 일종의 거대기계(mégamachine)를 낳는다.

영토 기계 대신에, 국가라는 <거대기계>, 즉 기능적 피라미드  
가 생겨난 것이다. 이 피라미드의 꼭짓점에는 부동의 모터인 전

39) Deleuze, Guattari (1972), p. 236 (p. 342).

40) “이집트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때때로, 왕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으로 여겨졌다. 전해지는 이야기[호루스 신화]처럼, 이집트의 역사는 이 점에서 시작한다. 우주의 힘과 지상의 힘을 결합함으로써, 통치자는 살아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루이스 멍퍼드(2013), 『기계의 신화 I: 기술과 인류의 발달』, 유명기 역, 파주: 아카넷, p. 325 ([ ]는 연구자).

41) Deleuze, Guattari (1972), pp. 227-228 (pp. 332-333).

제군주가, 측면에 있는 전동(轉動) 기관으로서 관료 장치가, 바닥에는 노동 부품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있다.<sup>42)</sup>

‘거대기계’는 뎀퍼드(Lewis Mumford)의 개념으로, 그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인도, 중국, 페루 등에서도 발견되는 체계적인 사회조직을 설명하고자 이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기계는 “정치, 경제, 군사, 관료, 왕 등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천문학 지식과 종교적 인가의 도움을 받은 왕”만이 조립하고 조종할 수 있다.<sup>43)</sup> 여기서 “각 인간 부품은 이 거대한 집단적 조직의 엄청난 작업량과 장대한 설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각 특정 직무, 역할, 일을 할당”<sup>44)</sup>받는데, 위의 인용문에 들뢰즈와 과타리는 그 역할을 부동의 모터, 전동 기관, 노동 부품으로 구별한다.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동의 모터’라는 표현인데, 미개 사회체와 관련될 경우 그것은 생산의 원천인 토지와 그것의 생산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만 사회체의 등장과 더불어, “부동의 모터로서 토지의 내재적 통일성”은 이제 “전혀 다른 본성의 초월적 통일성, 즉 국가의 통일성”으로 대체된다.<sup>45)</sup>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제군주’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개인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일부로 갖는 국가의 거대기계적 통일성 자체를 가리킨다. 그런 한에서, 전제군주는 “하늘의 비

42) Deleuze, Guattari (1972), p. 230 (p. 335).

43) 뎀퍼드(2013), p. 356. 그는 ‘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란츠 레울(Franz Reuleaux)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을 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 기능을 갖고 인간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부품들의 조합을 기계라고 정의하였다. [...] 그의 고전적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거대한 노동기계는 모든 면에서 진짜 기계이다. 비록 그 구성 요소는 인간의 뼈와 신경, 근육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들은 기계적 요소로 단순화되며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화되기에 더욱 그렇다.” 뎀퍼드(2013), pp. 359-360.

44) 뎀퍼드(2013), p. 356.

45) Deleuze, Guattari (1972), p. 171 (pp. 255-256).

는 물론 흠의 비옥함의 책임을 떠맡고, 생산력들의 일반적 전유의 책임을 떠맡는”<sup>46)</sup> 존재, 즉 야만 사회체 전체의 생산력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 없는 신체가 된다.

야만 사회체의 두 번째 측면, 즉 그것의 생산 중심은 이미 논의되었으므로(기관 없는 신체로서의 전제군주), 여기서는 전제군주를 중심으로 생산이 초코드화되는 양상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천 개의 고원』의 표현을 빌려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전제군주는 세 방향으로 작동하는 포획장치(*appareil de capture*)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포획장치가 자신이 포획하는 것 자체를, 즉 지대, 노역, 세금 자체를 창조한다는 사실이다.<sup>47)</sup> 앞서 우리는 미개 사회체가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등장을 막기 위해 잉여생산물을 축적하지 않고 처분하는 메커니즘(포틀래치)을 갖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전제군주는 자신이 고안한 새롭고도 놀라운 관념으로 이에 맞서는데, 그것은 자신이 토지 전체, 노동 전체, 화폐 전체의 유일한 소유자라는 생각이다. 이는 누군가가 토지, 노동, 화폐를 일시적으로 점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전제군주에게 있음을 뜻하며, 따라서 그가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은 마땅히 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sup>48)</sup> 삼중의 포획장치는 바로 이러한 귀속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지대는 토지의 생산력을, 노역은 주

46) Deleuze, Guattari (1972), p. 171 (p. 256).

47) Deleuze, Guattari (1980), p. 85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Smith (2018), p. 226 이하를 보라. 이러한 입장은 생산력의 증가와 잉여생산물의 축적을 통해 농촌공동체들이 점차 국가로 발전한다는 마르크스 및 차일드의 견해와 구별된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 논문의 결론을 보라.

48) “국가의 우월한 통일성은 원시 농촌공동체들의 기초 위에 설립되며, 이 공동체들은 흠의 소유권을 간직한다. 하지만 명백한 객관적 운동은 잉여생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형 토목공사에서 생산력을 국가에 결부시키며, 전유가 이루어지는 집단적 조건들의 원인으로 국가를 내세운다. 이러한 운동에 비추어 보자면, 흠의 참된 소유자는 [농촌공동체들이 아니라] 국가다.” Deleuze, Guattari (1972), pp. 229-230 (pp. 334-335, [ ]는 연구자).

민들의 노동력을, 세금은 주민들이 생산한 재화와 그것이 창출하는 이익을 포획한다. 요컨대, 삼중의 포획장치인 전제군주는 “토지의 탁월한 소유자, 대역사(大役事)의 기획자, 세금과 상금의 주인”<sup>49)</sup>인 것이다.

그런데 3.1에서 살펴보았듯 미개 사회체가 중앙집권적 권력의 등장을 저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전제군주 국가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국가의 기원과 관련해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최초의 국가를 발견할 가능성, 더 나아가 발견된 국가가 실제로 최초의 국가인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들뢰즈와 과타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1) 역사상 실존했던 다종다양한 국가들의 모델에 해당하는 원국가(Urstatt)가 존재하며 2) 예견-배제라는 미개 사회체의 노력이 시사하듯 그것이 이미 그 사회체와 공존해왔다는 주장이다. 2)의 측면은 중앙집권적 국가가 미개 사회체의 예견 및 배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된다. “미개 사회들이 국가를 몰아내고자 했다면, 그 사회들은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현실적 한계로서 —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한계로서 — 국가를” 예견하고 배제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모델로서의 원국가는 “실존하기에 **‘앞서’ 작용**”하고 있었던 셈이다.<sup>50)</sup> 1)의 측면은 마르크스와 비트포겔(Karl August Wittfogel)이라는 두 이론적 참조점과 관련된다. “기원으로서의 원국가, 모든 국가가 되고자 하고 욕망하는 영원한 모델. 이른바 아시아적 생산은 [...] 모든 역사의 지평을 이룬다.”<sup>51)</sup> ‘아시아적 생산’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지고의 소유자인 ‘중앙집권적 단위’가 작은 농촌공동체들을 지배하는 사회 형태를 일컫는다.<sup>52)</sup> 그런데 『동양적 전제주의』에서 비트

49) Deleuze, Guattari (1980), p. 555.

50) Smith (2018), p. 234 (강조는 원문).

51) Deleuze, Guattari (1972), p. 257 (p. 371).

포겔은 이 개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는 정부가 대규모 관개 및 홍수방지 시설을 관리하는 농경사회에서 총체적 권력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력 사회(hydraulic society)라고 불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듯 “비-서구의 전제 권력이 지닌 준-관리 체계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를 전적으로 관리적이고 훨씬 더 전체적인 그 준-관리 체계의 변형”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sup>53)</sup> 들뢰즈와 과타리는 이러한 시도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sup>54)</sup>, 그 개념을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그 결과, 그들에게서 아시아적 생산 혹은 원국가는 ‘현대 전체주의 국가들의 모델’을 넘어 ‘모든 국가의 모델’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모델’이라는 표현은 주의를 요한다. 그것은 실존했던 특정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국가들의 “선재하는 지평을 이루는 어떤 추상적인 패러다임”<sup>55)</sup>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실존했던 국가들은 “망각(소멸 또는 잠복)과 회귀라는 시간적 구조” 속에서, 그리고 “가변적인 역사적 조건들” 하에서 이 패러다임이 현실화되는 서로 다른 양상들에 해당한다.<sup>56)</sup>

52) “대부분의 아시아적 기본 형태들에서 이 모든 소규모 공동체들 위에서 있는 **종합적 통일체**는 상위의 **소유자**, 또는 **유일한 소유자**”로 나타나는데, 그 소유자는 바로 “수많은 공동체의 아버지인 전제군주”에 다름 아니다. 소규모 공동체들의 “잉여 노동의 일부는 **인격으로서** 실존하는 상위의 공동체에 속하고, 이 잉여 노동은 [...] 통일체, 즉 때로는 전제군주, 때로는 생각된 종족체(種族體), 신을 예찬하기 위한 공동 노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 칼 맑스(2000),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I』, 김호균 역, 서울: 백의. p. 99 (강조는 원문).

53) Karl August Wittfogel (1957),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 iii.

54) “비트포겔은 현대의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떤 점에서 기원적인 전제군주 국가에 가깝고 있는가를 밝혔는데,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할 것이다.” Deleuze, Guattari (1972), p. 261 (p. 375).

55) Sibertin-Blanc (2010), p. 115.

56) Sibertin-Blanc (2010), p. 115.

### 3.3. 문명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체 역시 생산 중심과 흐름 관리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앞당겨 말하자면, 문명 사회체(자본주의 기계)는 도처에서 흐름을 탈코드화 및 탈영토화하여 끝없이 유동성과 가변성을 추구하는 한편, 공리계(公理系, axiomatic)를 통해 여러 현실화 모델(modèle de réalisation)들 속에서 흐름을 관리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첫 번째 측면, 즉 16세기 이후 문명 사회체의 생산 중심인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이는 본원적 축적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sup>57)</sup>을 탈코드화와 탈영토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한 것이다.

『자본』의 핵심에서, 마르크스는 두 <주요> 요소들의 만남을 밝힌다. 한편에는 탈영토화된 노동자가 있어, 그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자유롭고 별거벗은 노동자가 되었고, 다른 한편에는 탈코드화된 돈이 있어, 이것이 자본이 되어 노동력을 살 수 있다. [...] 자본주의 내지 자본주의 절단의 정의, 즉 탈코드화되고 탈영토화된 모든 흐름의 결합은 [...] 산업자본에 의해 규정된다. [...]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자본주의 기계가 조립되는 것은 자본이 생산을 직접 전유할 때뿐이며, 금융자본과 시장자본이 자본주의 생산

57) “먼저 매우 다른 두 부류의 상품소유자가 서로 마주 보고 접촉해야만 한다. 그 한쪽은 화폐와 생산수단·생활수단의 소유자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구입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가치액을 증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필요한 일이다. 다른 한쪽은 자유로운 노동자로, 노동을 파는 자이다.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즉 노예와 농노 따위처럼 그들 자신이 직접 생산수단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이며, 또 자영농민의 경우처럼 그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즉 생산수단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 이른바 본원적 축적이란 바로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역사적 분리과정이다.” 카를 마르크스(2008), 『자본 1-2』, 강신준 역, 서울: 길, pp. 962-963.

양식 일반에서 분업에 상응하는 특유한 기능이 될 때뿐이다.<sup>58)</sup>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더 이상 묶여 있는 신분과 영토가 없는(탈영토화) 노동자들의 흐름이고, 두 번째 요소는 노동력을 위시한 여러 구체적·이질적 상품들을 가로지르는(탈코드화) 추상적·등질적 자본이다. 이 양자를 결합하는 것은 산업자본이다. 자본주의 초기에 산업·상업·금융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결연 자본’), 브로델이 지적하듯 실제로는 영토들 간의 가격 차이에서 생겨나는 막대한 이윤을 토대로 상업이 우위에 있었으며, 따라서 “산업이윤은 언제나 상인들의 선취에 짓눌렸다.”<sup>59)</sup> 그러나 “기계 사용이 생산의 조건들을 변화시켜 산업도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된 산업혁명기”<sup>60)</sup>에 이르면, ‘자본이 생산을 직접 전유하는’ 산업이 주도권을 획득하면서 상업과 금융을 좌우에 거느리게 된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이 과정에서 자본이 “결연 자본이기를 그치고 혈연 자본이 된다”<sup>61)</sup>고 말한다. 아버지 신이 아들 신을 낳지만 양자는 결국 하나의 동일한 존재이듯이, 가치는 잉여가치를 낳지만 양자는 결국 (다음 잉여가치를 낳는) 하나의 동일한 가치이기 때문이다.<sup>62)</sup> ‘돈을 낳는 돈’, ‘잉여가치

58) Deleuze, Guattari (1972), pp. 266-268 (pp. 384-386). 두 요소의 만남은 수 세기에 걸친 탈코드화 및 탈영토화의 귀결이다. “10~14세기경, 우리는 탈코드화의 요인들과 탈영토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발견한다. [...] 영주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농부들의 무리, 농노제보다 훨씬 덜 영토적인 착취수단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영주들의 무리, [...] 끊임없이 축적의 대상이 되어 거대한 상업적 순환에 투입되는 화폐들의 무리.” Deleuze, Guattari (1980), p. 269.

59) Braudel (1967), II, p. 299. 브로델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경우 ‘자본’이라는 용어는 12세기부터 사용되어 14세기에 일반화되는데, 당시에는 주로 ‘상업회사의 화폐 자본’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60) Braudel (1967), II, p. 327.

61) Deleuze, Guattari (1972), p. 269 (p. 387).

62) “그것은 본원적 가치로서의 자신과 잉여가치로서의 자신을 서로 구별짓는다.



를 낳는 가치'라는 자본의 성격은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자본은 '상품-화폐-상품'의 형태가 아니라 '화폐-상품-화폐'의 형태를 띠는데, 말하자면 그것은 “사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생산된 재화를 생존의 관점에서 유용한 다른 재화와 바꾸기) 다시 팔기 위해서 사는(어떤 재화를 이윤의 관점에서 다른 재화와 바꾸기)”<sup>63)</sup> 것이다. 화폐를 통해 상품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경유하여 화폐의 증식을 욕망할 때, 자본의 운동은 자기목적적이다.<sup>64)</sup>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권리상 무한한 한에서, 자본은 문명 사회체의 기관 없는 신체가 된다.

자본 운동의 자기목적성과 무한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공황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문제를 잠시 검토해보자.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본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변자본(capital constant, 원자재와 기계설비)의 비율을 높이고 가변자본(capital variable, 노동력)의 비율을 낮춘다. 그런데 자본 구성에서 가변자본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본의 이윤율이 줄어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주지하듯이, 마르크스는 노동력을 잉여가치의 유일한 원천으로 규정

즉 그것은 아버지 신으로서의 자기와 아들 신으로서의 자기를 구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나이가 같고 사실상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선대(先貸)된 100파운드스털링은 오직 10파운드스털링이라는 잉여가치에 의해서만 자본이 되며, 그것이 자본이 되는 순간, 즉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태어나게 되는 순간 양자의 구별은 다시 소멸해버리고 양자는 하나[110파운드스털링]가 되기 때문이다.” 카를 마르크스(2008), 『자본 I-1』, 강신준 역, 서울: 길, pp. 235-236 ([ ]는 번역자).

63) Rosanvallon, Preteseille (2016), p. 79.

64) “단순한 상품유통 — 구매를 위한 판매 — 은 사용가치의 취득[또는 욕망의 충족]이라는 유통 외부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반면 자본으로서의 화폐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인데, 왜냐하면 가치의 증식이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 운동 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운동은 무한히 계속된다.” 마르크스 (2008), p. 232 ([ ]는 번역자).

한다).<sup>65)</sup> 이를 상쇄하고자 자본은 여러 방안을 고안하는데, 노동착취도의 증가(노동일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의 임금 인하, 저렴한 불변자본 요소들의 사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sup>66)</sup>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쇄 방안들을 무력화하는 노동 환경의 변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의 예언에 맞서 크고 작은 공황들을 극복해온 자본의 역량을 염두에 두면서, 들뢰즈와 과타리는 여기에 다음 세 논점을 덧붙인다. 첫 번째 논점은 “하나는 임금노동자의 계급 속에 있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대차대조표 속에 있는 돈의 이원성”<sup>67)</sup>이다. 먼저, 모든 임금노동자들이 절감하듯 노동력의 대가인 월급은 곧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어 사라지는데,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회수하기 위해 지급한 돈에 불과하다(교환화폐). 다음으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이익’과 교환되는 다른 성격의 돈이 발견된다(신용화폐). 이 후자의 돈은 앞선 용자의 실패를 더

65) “이러한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 비율의 점진적인 상승은 [...] 필연적으로 **일반이윤율의 점진적 하락**을 가져온다.” 카를 마르크스(2010), 『자본 III-1』, 강신준 역, 서울: 길, p. 284 (강조는 원문). 공황은 생산력의 발전이 야기하는 두 대립적 효과 간의 모순에서 생겨난다. 그중 하나는 생산에 투입된 자본량의 증가에 따른 이윤량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설명한 이윤율의 감소다. “이들 모순된 계기들 간의 갈등은 주기적으로 공황의 형태로 표출된다.” 마르크스(2010), p. 329. 이윤율의 감소는 자본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로 인해 자본이 사전에 약속한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화폐의 지불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과 기업·기업과 은행 간의 신용관계가 훼손된다. 뒤이어 기업과 은행의 도산, 실업의 증대, 수요의 감소, 생산의 위축이 야기된다(공황).

66) 마르크스(2010), pp. 308-319.

67) Deleuze, Guattari (1972), p. 273 (p. 391). 두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이원성이 빚어지는 장소는 바로 은행이다. “자본주의가 그 본질에 있어 혈연적 산업 자본이라는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업적·금융적 자본과의 결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느 모로든, 체계 전체와 욕망의 투자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바로 은행이다.” Deleuze, Guattari (1972), pp. 272-273 (p. 391).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을 참조한 것이다. Suzanne de Brunhoff (1971), *L'offre de monnaie*, Paris: Maspero.

큰 용자로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토지가 무한 부채의 미개적 형식을, 전제군주가 무한 부채의 야만적 형식을 표현하듯) 무한 부채의 문명적 형식을 표현한다.<sup>68)</sup> 두 번째 논점은 ‘자본의 이전’이다. 자본은 이 운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착취의 대상을 찾아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부’에 중심부 외부의 주변부(저개발 국가)는 물론 중심부 내부의 주변부(여성, 이민자, 비정규직 등)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즉 이운율의 저하에 맞서고자 할 때, 자본은 “주변부 프롤레타리아를 크게 착취하는 식으로 높은 잉여가치율을 확보”<sup>69)</sup>하는 것이다. 세 번째 논점은 ‘반생산’이다. 실업과 침체가 장기화될 때, 놀랍게도 자본은 기존의 생산물들을 광범위하게 파괴함으로써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결핍을 창출한다. 두 저자가 그 유효성을 날카롭게 요약하듯이, “뉴딜이 실패했던 것을 성취해낸 것은 전쟁뿐이었다.”<sup>70)</sup> 이상의 세 논점은 이운율의 경향적 저하를 극복하는 자본의 운동을 요약하는 것으로서, 자본이 외적 한계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적 한계를 끊임없이 갱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71)</sup>

이제 두 번째 측면, 즉 흐름 관리의 측면을 살펴보자. 들뢰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탈코드화된 흐름들의 일반 공리계와 함께 형성된다.**”<sup>72)</sup> 주지하듯이 공리(公理, axiome)는 그 자체로 자명하여 증명

68) Deleuze, Guattari (1972), p. 272 (p. 390).

69) Deleuze, Guattari (1972), p. 275 (p. 394). 이 논점에 대한 두 저자의 주요 참조대상은 다음과 같다. Samir Amin (1970), *L'accumulation à l'échelle mondiale*, Paris: Anthropos.

70) Deleuze, Guattari (1972), p. 279 (p. 399).

71) “우리는 자본주의가 우주의 한계, 자원과 에너지의 극단적 한계에 직면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직면하는 것은 자기 고유의 한계일 뿐이며(기존 자본의 주기적인 가치 하락), 그 한계만을 밀고 나가거나 이동시킨다(이운율이 높은 신규 산업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자본).” Deleuze, Guattari (1980), p. 579. 이상의 세 논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재인(2013), pp. 251-257을 보라.

72) Deleuze, Guattari (1980), p. 565 (강조는 원문).

이 불필요한 명제를, 공리계는 그러한 명제들의 집합을 일컫는다. 두 저자가 보기에 자본주의가 일종의 공리계라면, 이는 그것이 생산·교환·소유·가치·시장 등에 관한 공리들을 토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공리들은 자본주의의 법, 제도, 관례 등을 구성하는 ‘작용적 진술들’, 이를테면 입법적·규제적·금융적 진술들의 형태로 나타난다(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 규제 조항, 노사정 대화기구의 최저임금 인상 합의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 등).<sup>73)</sup>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앞선 두 사회체를 핵심적으로 규정하던 코드라는 용어는(탈코드화된 사회체인) 문명 사회체에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즉 문명 사회체에서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코드가 아니라 공리인 것이다. 두 저자는 코드와 공리의 차이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sup>74)</sup>, 여기서 세 논점에만 주목해보자. 코드는 각 흐름 고유의 본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질적이고, 흐름들 사이에 등가관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경제를 그 외부(미개의 혈연과 결연, 야만의 전제군주)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경제 외적이다. 반면, 공리는 질적 본성과는 무관한 흐름의 추상량(일반 등가물로서의 화폐)을 다룬다는 점에서 양적이고, 흐름들 간의 등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이며, 경제력의 차이를 권력의 차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경제 내적이다.<sup>75)</sup> 『천 개의 고원』에서 두 저자는 공리들의 구성에 따라 자본주의가 여러 현실화 모델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모델들은 상반된 두 경향 사이에 존재한다.<sup>76)</sup> 한편으로, 공리를 계속 덧붙여 흐

73) Smith (2018), p. 239 참조.

74) Deleuze, Guattari (1972), pp. 296-299 (pp. 420-424).

75) 마지막 논점이 시사하듯이, 문명 사회체에서 국가는 더 이상 자본을 비롯한 여러 흐름들의 초월적 지배자가 아니다. (야만 사회체에서와는 달리) 이제 자율성을 띠게 된 경제가 다른 사회적 관계들(혈연적·정치적·사법적·문화적 등)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Rosanvallon, Preteseille (2016), p. 94 참조.

76) Deleuze, Guattari (1980), pp. 577-578; Rosanvallon, Preteseille (2016), pp. 125-126

름을 광범위하게 제어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예컨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경제 공황과 러시아 혁명이 결합된 영향으로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 고용, 노동조합, 사회제도, 국가의 역할,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에 대한 공리를 다양화하고 새롭게 고안해야 했다. 케인스 경제학과 뉴딜 정책은 [그에 부응하는] 공리들의 실험실”<sup>77)</sup>이었으며, 비교적 근래에 부상한 복지국가 개념과 사회민주주의도 이 첫 번째 경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리를 계속 제거하여 흐름을 최소한으로 제어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시카고 학파 경제학과 레이저노믹스,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국가들, 그리고 극소수의 왕족이 자원 수출의 이익을 독점하는 일부 아랍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 4. 나가는 글: 보편사 개념의 의의

『안티 오이디푸스』에 대한 한 토론회에서 철학자 다둔(Roger Dadoun)은 들뢰즈와 과타리가 사회체 분석에 동원하는 민족학적·인류학적 논의들이 철저하고 상세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78)</sup> 그들이 전문적인 민족학자나 인류학자가 아닌 한에서,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지적이며 경제학적·사회학적 등등의 다른 논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민족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클라스트르가 이에 맞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사실이다. 두 저자는 “미개 및 야만과 관련해서 민족학자들이 아직 쓴 적이 없는 것”을 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들)에 대한 일반 이론”을 구축했다는

참조.

77) Deleuze, Guattari (1980), p. 577 ([ ]는 연구자).

78) Gilles Deleuze (2002), “Deleuze et Guattari s’expliquent...”, édition préparée par David Lapoujade, *L’île déserte: Textes et entretiens 1953-1974*, Paris: Minuit, p. 315.

것이다.<sup>79)</sup> 그렇다면 보편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제시한 새로운 논점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는 사회진화론과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아래의 두 논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로, 들뢰즈와 과타리의 유형학적 사회체론은 사회체들 간의 이행과 공존을 동시에 설명하는 대안적 논리를 제공한다. 모건은 “인류가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여 경험적 지식을 서서히 축적함으로써 미개에서 [야만을 거쳐] 문명으로 진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자연적인 동시에 필연적인 진보”로 규정했다.<sup>80)</sup> 엥겔스는 모건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언급된 세 단계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특히 기술 발전의 정도와 관련해서 구별했다.<sup>81)</sup> 이를테면 미개는 자연산물을 주로 활용하고 인간이 이를 위한 보조도구들을 만드는 시기이고, 야만은 목축과 경작 등을 도입하여 자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시기이며, 문명은 공업과 기술이 본격화되어 자연물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공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모건 및 엥겔스와 동일한 용어들을 활용하면서도, 들뢰즈와 과타리는 다음 두 지점에서 그들과 구별된다.<sup>82)</sup> 한편으로, 두 저자는 사회체를 안정된 것으로 전제한 뒤 그것이

79) Deleuze (2002), p. 315 (클라스트르의 발언).

80) Morgan (1877), p. 3 ([ ]는 연구자).

81) 프리드리히 엥겔스(2012),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서울: 두레, p. 43.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건의 『고대사회』를 높이 평가하면서 유물론적 문명사 연구의 토대로 삼았다. 마르크스는 1880년 말부터 1881년 초까지 이 책의 주요 대목들을 발췌한 뒤 주석을 덧붙인 유고를 남겼고, 엥겔스는 이 유고를 바탕으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집필했다. 모건의 중요성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사회의 원시적 상황에 관한 중요한 책이 하나 있다네. 생물학계의 다윈만큼 중요한 그것을 사실 마르크스가 발견한 셈인데, 모건의 『고대사회』(1877)가 바로 그 책이야.” 요하임 헤르만,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 대하여』; 엥겔스(2012), p. 311에서 재인용.

82) Rosanvallon, Pretescille (2016), pp. 39-41, pp. 46-47 참조.

어떻게 다른 사회체로 이행할 수 있는지는 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체가 어떻게 일시적·국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앞서 살펴본 각 사회체의 흐름 관리에 대한 개념들(코드화, 초코드화, 탈코드화와 공리계의 구성)은 사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고안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두 저자는 역사를 단계별로 규정하는 선형적 진화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체들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태도는 『천 개의 고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공존하는 다섯 종류의 사회체가 제시된다. "원시 사회는 **예견-배제 메커니즘**에 의해, 국가 사회는 **포획장치**에 의해, 도시 사회는 **다극화 도구**에 의해, 유목 사회는 **전쟁기계**에 의해, 마지막으로 국제 조직[...]은 **이질적인 사회구성체들의 총괄**에 의해 규정된다."<sup>83)</sup> 이는 미개·야만·문명이라는 용어들 속에 은연중에 남아있던 사회진화론의 흔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들뢰즈와 과타리의 원국가 개념은 한편으로는 원시 사회의 성격과 관련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성격과 관련해서 사회진화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첫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 원국가 개념은 원시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의 동역학을 보여준다. 클라스트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진화론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야만(아시아적 생산양식)에만 주목할 뿐 미개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미개를 “계급도, 착취도, 심지어는 노동도 없는” 무기력한 사회라고 전제할 뿐이며, 따라서 정작 “미개에서 야만으로 가는 이행”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84)</sup> 그에 반해, 두 저자의 원

83) Deleuze, Guattari (1980), p. 542. 이러한 공존의 사례는 심지어 차일드에게서도 발견된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전개할 때, 마오리 족은 여전히 마제 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생업경제는 아직도 신석기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든 차일드(2013), 『신석기혁명과 도시혁명』, 김성태·이경미 역, 서울: 주류성, p. 75.

84) Deleuze (2002), p. 316 (클라스트르의 발언).

국가 개념은 “가장 원시적인 사회들에게도” 국가가 존재한다고, “끊임없이 배제되고 현실화를 저지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up>85)</sup> 이를 통해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아가 미개로부터 계급투쟁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권력 없는 사회들의 역사는 잠재된(latent) 국가에 맞선 투쟁의 역사”<sup>86)</sup>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측면과 관련해서, 원국가 개념은 사회진화론의 도구주의적 국가 개념에 비판적 함의를 갖는다. 엥겔스가 보기에, 국가는 잉여생산이 가능해진 “일정한 발전 단계”의 산물로서, “경제적으로 서로 모순되어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들” 간의 투쟁을 저지하고 질서를 확립하고자 생겨났다(그런 한에서, 국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일 수밖에 없다).<sup>87)</sup> 그러나 들뢰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잉여생산은 ‘국가 없는 사회’ 내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도 가능하다. 문제는 예전-배제 메커니즘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며, 국가의 발생을 위해서는 이 메커니즘이 무력화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잉여생산물의 축적은 국가의 발생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발생이 낳은 ‘효과’라고 할 수 있다.<sup>88)</sup> 이런 관

85) Deleuze (2002), p. 316 (클라스트르의 발언).

86) Deleuze (2002), pp. 316-317 (클라스트르의 발언, 강조는 원문). 그러나 『천 개의 고원』에서 두 저자가 지적하듯이, 앞선 발언의 취지와는 달리 클라스트르의 저작에는 여전히 모종의 사회진화론이 남아있다. 거기서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는 국가에 선행하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클라스트르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들의 선재성(先在性)과 자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 원시 꼬된들의 자급자족능력, 자족성, 독립성, 선재성은 민족학자의 꿈일 뿐이다.” Deleuze, Guattari (1980), p. 535.

87) 엥겔스(2012), p. 294, p. 297. 들뢰즈와 과타리는 이러한 관점이 마르크스와 차일드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역사학자 마르크스와 고고학자 차일드는 다음의 논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즉 농업 공동체들을 초코드화하는 고대의 제국 국가는 적어도 일정 정도의 생산력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Deleuze, Guattari (1980), p. 534.

88) Sibertin-Blanc (2010), p. 112 참조. 클라스트르의 다음 언급도 함께 보라. “신석



점에서 보자면, 국가는 사회진화론에서 말하듯이 이미 경제적 우위를 점유한 지배계급이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전제군주와 그 추종 집단에 해당하는 지배계급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배제 메커니즘의 붕괴 및 원국가의 현실화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기 혁명이 당시의 인간 집단의 물질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생활을 편하게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계적으로 사회질서의 전복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 결정적인 것은 분명 정치적 단절이지 경제적 변화가 아니다. 인류의 선사시대에 일어난 진정한 혁명은 [...] 원시사회의 종말을 가져온 이러한 정치 혁명의 출현이다. 우리는 그것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다.” 클라스트르 (2005), pp. 249-250.

## 참고문헌

### 【논 저】

- 김재인(2013), 「들뢰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논문.
- 고든 차일드(2013), 『신석기혁명과 도시혁명』, 김성태·이경미 역, 서울: 주류성.
- \_\_\_\_\_ (2011), 『인류사의 사건들』, 고일홍 역, 서울: 한길사.
- 루이스 멍퍼드(2013), 『기계의 신화 I : 기술과 인류의 발달』, 유명기 역, 파주: 아카넷.
- 앙드레 르루와-그루앙(2015), 『행위와 말 1: 기술과 언어』, 공수진 역,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이언 뷰캐넌(2020), 『『안티-오이디푸스』 읽기』, 이규원·최승현 역, 서울: 그립비.
- 임마누엘 칸트(2009), 『칸트의 역사 철학』, 이한구 편역, 서울: 서광사.
- 제리 무어(2002), 『인류학의 거장들』, 김우영 역, 서울: 한길사.
- 질 들뢰즈·펠릭스 과타리(2014),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역, 서울: 민음사.
- 카를 마르크스(2010), 『자본 III-1』, 강신준 역, 서울: 길, 2010.
- \_\_\_\_\_ (2008), 『자본 I-1』, 강신준 역, 서울: 길, 2008.
- \_\_\_\_\_ (2008), 『자본 I-2』, 강신준 역, 서울: 길, 2008.
- 칼 맑스(2000),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I』, 김호균 역, 서울: 백의.
- 프리드리히 엥겔스(2012),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서울: 두레.
- 피에르 클라스트르(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홍성흡 역, 서울: 이학사.
- Althusser, Louis (1994), “Le courant souterrain du matérialisme de la rencontre”, *Écrits philosophiques et politiques, tome 1*, Stock/IMEC.
- Bergson, Henri [1959(2001)], *La pensée et le mouvant, Œuvres*, Paris: PUF.
- Braudel, Fernand [1967(1979)],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Ie-XVIIIe siècle*, Paris: Armand-Colin, I-III.

- Buchanan, Ian (2008), *Deleuze and Guattari's 'Anti-Oedipus': A Reader's Guide*,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 Deleuze, Gilles (2003), “Préface pour l'édition italienne de *Mille plateaux*”, édition préparée par David Lapoujade, *Deux régime de fous. Textes et entretiens 1975-1995*, Paris: Minuit.
- \_\_\_\_\_ (2002), “Deleuze et Guattari s'expliquent...”, édition préparée par David Lapoujade, *L'île déserte: Textes et entretiens 1953-1974*, Paris: Minuit.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1972(2008)], *L'anti-Œ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 1*, Paris: Minuit.
- \_\_\_\_\_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 2*, Paris: Minuit.
- Godelier, Maurice (2010), *Au fondement des sociétés humaines*, Paris: Flammarion.
- Krtolica, Igor (2012), “Deleuze, entre Nietzsche et Marx: l'histoire universelle, le fait moderne et le devenir-révolutionnaire”, *Actuel Marx* 52, Paris: PUF.
- Morgan, Lewis Henry [1877(1964)], *Ancient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anvallon, Jérôme and Benoît Preteseille (2016), *Deleuze & Guattari à vitesse infinie 2*, Paris: Ollendorff & Desseins.
- Sibertin-Blanc, Guillaume (2010), *Deleuze et l'anti-Œdipe: La production du désir*, Paris: PUF.
- Smith, Daniel W. (2018), “7000 BC: Apparatus of Capture”, Henry Somers-Hall, Jeffrey A. Bell and James Williams(ed.), *A Thousand Plateaus and Philosoph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Wittfogel, Karl August [1957(1978)],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0년 12월 29일

심사 완료일: 2021년 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ABSTRACT

---

## A Study on Deleuze and Guattari's Universal History

Seong, Gihyeon\*

Universal history is an attempt to give an account of the entire history of mankind. Contrary to the modern philosophers who tried universal history in relation to a universal purpose, Deleuze and Guattari emphasizes a universal object in the center of their theory. According to the way of regulating the object, Flow, their universal history has three types of society: Savages, Barbarians, and Civilized Men.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ir conception of universal history is justified, emphasizing its two main characteristics: history of accidental encounters, and ret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the result of the encounters. Second, the nature of each type of society is revealed in terms of the 'source of production' and the 'way of regulating flows': Earth and coding in Savages, Despot and overcoding in Barbarians, Money and decoding in Civilized Men. Third, the validity of their universal history is presented, in confrontation with social evolutionists. On the one hand, their universal history suggests an alternative point of view that explains both transition and coexistence between different types of society. On the

---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ther hand, it reveals the dynamics of power in primitive society ignored by social evolutionists, and criticizes their instrumentalist theory of the state by the new conception of the origin of state (Urstaat).

